



중립노회들 속속 개신총회로 합류

충경노회, 부산노회, 경원1노회 개신총회 가입



충경노회(노회장 이종선목사)는 그동안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중립을 지켜온다. 이번에 개신총회에 가입하였다. 충경노회장 이종선목사는 개신총회에 대한 소감을 밝히면서 그동안 노회의 진로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개신대학원대학교 중심의 개신총회가 잘 발전하는 모습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모교인 개신대학원대학교가 있는 교단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전 노회원들과 함께 개신총회에 소속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개신총회가 새롭게 설립된 것에 대하여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개신총회가 잘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총회 총무 조영식목사는 충경노회의 가입으로 개신총회는 중부권에 큰 고두보를 확보하게 되었고 총회가 전국 조직으로 발전하는데 큰 힘을 주리라 확신한다고 밝히며 여러 노회에서 개신총회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문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경노회는 노회장에 이종선목사, 부산노회장 겸 서기에게 권혁진 목사, 회의록서기에 오재근 목사, 회계에 정영선 목사이다.

또한 부산노회(노회장 이천섭 목사, 서기 이응은목사)가 새롭게 가입하였다. 부산노회는 개혁측에 있다가 개신총회에 새롭게 가입하였다. 노회장 이천섭목사는 그동안 개신출신으로서 마음이 따랐는데 개신총회가 새롭게 개신대학원대학교 중심으로 총회를 설립하고 잘 운영해나가고 밝혔다.

전국 교역자 부부 하기 수양회 속초에서 열려

제1회 2015 전국 교역자부부 하기수양회가 “내 안에 거주하라(요15:7)”는 주제로 지난 6.22(월)부터 24일(수)까지 2박 3일간 속초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렸다. 개신총회가 창립되고 난 후 첫 번째 열린 교역자 수양회였기에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등록인원 100여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예배는 서기 하금식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김순모 목사가 기도하고 총회장 박용목사가 고전 1:10-17을 본문으로 ‘굳게 하심이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총회장은 개신총회가 더욱 발전하도록 우리 모든 총회원이 화합하며 하나님께 소망하여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설교하였다. 설교후에는 개신대학원대학교 명예이사장 조경대 목사가 축도하였다.

저녁집회는 종암중앙교회 친양단의 친양인으로 시작하여 회의록서기 백영강목사의 사회로 경기노회 서기 정현욱목사가 기도한 후 종암중앙교회 지회자이며 성결대학교 교수인 계봉원집사가 특송하였다. 이어서 수양회 강사인 배창돈 목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배창돈 목사는 강의에서 자신의 목회 경험담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강의를 진행하였다. 교회를 개척한 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었고 1986년 사립인 교회에서 제자훈련세미나에 참석한 후 목회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고 무려 38년의 시간 동안 제자훈련에 매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배창돈 목사는 이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목회는 제자훈련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교회가 분쟁과 다툼이 없이 오직 순종과 협신을 이루고자 할 때 제자훈련만한 목회 방법은 없다고 역설하면서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고 교인들이 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배창돈 목사는 자신의 교회는 교인의 70% 이상이 전도된 교회로서 자부심이 있다고 말하며 전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였다. 강의를 마친 후에는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총회와 개신신문사를 위하여,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위하여 특별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경기노회 총회장 김진일목사의 축도로 저녁집회를 마쳤다.

둘째날 오전집회는 영남노회장 배상태목사의 사회로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조성현 박사의 강의가 이어졌다. 조성현 박사는



는 설교자의 비법: 은유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강의에서 설교에 있어서 은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은유는 생기있게 실감나게 전달하려는 도구임을 말하였다. 은유의 정의, 은유의 필요성, 은유의 실제, 은유의 적용을 통해 설교가운데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서 은유가 매우 중요하고 은유의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설교의 전달 능력은 더욱 좋아질 것이고 설교가 더욱 풍성해 질 것이다. 그리고 강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수준높은 실

훈련의 열매이며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제자훈련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에서 전도폭발훈련을 많이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전도폭발 훈련을 받아야 하며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배창돈 목사의 두 번의 강의는 참석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고 목회의 자신감을 불러 넣어 주었다.

마지막날 오전에는 개신대학원대학교

원대학교 총장 조성현박사(선풍기 10대, 50만원), 개신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조성환 목사 아이페드 1대를 기증하였다. 부총회장 박진관목사 30만원, 부총회장 진왕수 장로 30만원, 서기 하금식목사 30만원, 부서기 김순모목사 10만원, 회록부서기 백영강목사 10만원, 회록부서기 나건용목사 10만원, 총무 조영식목사 10만원, 새안암 교회 최승범목사 10만원, 손석태 명예총장 10만원, 경기노회 10만원, 전국여전도회 회장 김선미원사 10만원, 김영을 목사

속초 켄싱턴 리조트서, 등록인원 100여 명 참석

제작 강의를 들으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둘째날 오후에는 노회별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노회별로 식사하고 관광 또는 노회별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노회는 이승만 박사 기념관과 김일성 별장, 통일전망대를 관광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여수노회장 서민성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배창돈목사가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였다. 배창돈 목사는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하셨다고 강조하였다. 교회는 권세있는 공동체임을 강조하며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며 교회는 또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자신이 시무하는 평택대광교회는 유급직원

께서 10만원을 협찬하였다. 경품 선물로는 아이페드2대, 선풍기 20대, 쿠쿠밥솥 등 80여점 넘게 준비되어 참석자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경품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좋아했다.

준비위원장 김순모 목사는 이번 하기

수양회는 새롭게 출범한 개신총회가 한마음되고 하나되는 아주 뜻깊은 수양회가 되었다고 말하며 장소도 좋았고 특별히

평택대광교회 배창돈목사님의 강의와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님과 교수님들의 강의가 매우 수준이 높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또한 여러분으로

개신총회가 이제 자리 잡고 조금씩 발전해 가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고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제2회 총회 임원 후보자 등록공고

총회 임원선거규정에 근거하여 제2회 총회 임원(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기간

2015년 8월 1일(토)~20일(목)

2. 등록장소

총회사무국(전화/02-3674-7008~9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604호)

3. 후보자격

(1) 목사인 경우 임직 10년 이상, 장로의 경우 임직 3년 이상인 자
(2) 목사인 경우 목사계속교육이수자
(3) 총회 공직 정년에 의거 만 70세가 넘지 않는 자

4. 제출서류

(1) 등록원서 1통(소정양식, 3개월 이내 여권사진 3매)
(2) 소속 노회의 추천서 1통
(3) 입후보자의 소견서 1통(A4용지 3매 이내)
(4) 신학교 졸업증명서 1통
(5) 임직증명서(노회발행) 1통 (단, 장로는 당회 발행(시무기간 명시))

(6) 소속 노회 발행 담임목사 증명서(장로는 제외) 1통

(7)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기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각 1통)

(8) 이력서 1통

(9) 소속노회 상회비 원납증명서(총회 발행)

(10) 총회주일세례교인현금 납부증명서(총회 발행)

5. 등록금 및 총회발전기금

등록금 100만원, 소정의 총회발전기금

등록금 납부계좌

외환은행 630-009626-971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

(입금시 입후보자 성함명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총회장 박 용 목사 위원장 정대성 목사 서기 최종태 목사

사 설

발전하는 개신총회와 개신대학원대학교

지난 6.22부터 24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속초에서 전국 교역자 부부 하기 수양회가 개최되었다. 개신총회가 창립되고 첫 번째 열린 하기 수양회였다.

국적적으로 메르스 전염병과 가뭄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100여명 가까운 교역자들과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 재충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목사님들의 열띤 강의와 친양,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

또한 쉬는 시간에는 한가롭게 비단가를 거닐면서 목회를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확인한 것은 점점 발전해가는 개신총회를 확인한 것이다.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개신총회의 성공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

개신총회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폐회예배에서 부총회장의 언급대로 작지만 강한 총회가 될 것을 확신한다. 이제 총회가 얼마나 남지 않았다. 총회를 앞두고 상비부 조직이 이루어질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다음세대를 키우는 여름 수련회

이제 교회마다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장년, 여전도회, 남전도회 등 각종 수련회가 열리는 여름시즌이 왔다.

교회마다 출신을 저하와 청·장년 세대의 감소로 주일학교가 크게 쇠퇴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음 아닌 다음세대에 대한 위기이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세대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성세대들의 분열과 분쟁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를 떠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기를 원한다면 다음세대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다음세대의 영적인 쇠퇴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

개신신문

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총회장 : 박 용 발행인 : 조성환 편집국장 : 고태성 인쇄인 : 이정자

등록번호 : 서울 다 10958 / 등록일 : 2015년 3월 5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604호 / 대표전화 : 02)3674-7008 팩 스 : 02)3674-7010

개신신문 계좌 : 수협 154-67-019920 예금주 (발행인 조성환)

총회임원회

총회임원회, 총회 사무실서 소집

총회 임원회가 2015.7.7.(화) 총회 사무실에서 회집하였다. 총회장의 전 임원이 참석하였고 총회장의 설교와 기도후에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먼저 회계 김영수장로의 회계보고를 받았다. 회계보고와 함께 각 노회가 총회 상납금을 성실히 납부해줄 것을 총회 임원회가 관심을 갖고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공천부 조직에 관한 것에 있어서 이제 총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회 규칙에 의거 총회 2개월 전에 공천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공천위원회가 7.14(화) 오전 11시 총회 사무실에서 모임 것을 결의하였다. 총회 공천위원회는 각 노회장으로 구성된다.

이어서 총회 교역자 수양회 결산을 총무가 보고하였다. 메르스등 사회적인 여건과 총회의 여건을 생각해볼 때 많은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예상을 뛰어넘어 많은 인원이 참석하게 되어 성황리에 개최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총회 선거관리 위원회 조직건 또한 총회 규칙에 의거해 7.14(화) 공천위원회들이 선거관리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전국여전도회 연합회 회장



김선미 권사를 비롯하여 임원들이 임원회에 참석하여 본 연합회를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증경회장 김선좌권사의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들었다. 이어서 개신신문 편집국장 고태성목사의 개신신문 현황을 보고 받았다. 현재 월 1회 개신신문이 발행되고 있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발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총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에 총회장 박용목사가 적극

적으로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다. 총회장 박용목사는 임원회를 통하여 현재 개신총회는 잘 되어가고 있음을 밝히며 조금은 부족한 면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잘 발전해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하며 총회 합동간에 대해서도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점도 밝혔다. 총무 조영식목사는 총회로서 좋은 모습이 부각되고 있어 매우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부총회장 진왕수장로의 기도로 임원회를 마치고 부총회장 박찬권목사가 점심을 대접하였다.

총회 공천위원회, 임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지난 2015년 7월 14일 오전 11시 총회 사무실에서 총 14개노회 중 12개노회 노회장들이 참석하여 총회 공천위원회와 임원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부 예배에서는 총회 서기이며 전북동 노회장인 하금식목사의 사회와 이경호목사(강원노회 부노회장)의 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공천위원회 임원을 선정하였다. 공천위원장에는 서울 북노회장 조광환 목사가 선임되었고 서기에는 영남노회장 배상태목사가 선임되었다.

개신총회는 이제 상비부 배정을 완료하고 총회에서 허락을 받으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선정함으로서 총회가 규모와 내실을 더욱 기하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임원선거 관리위원회를 선정하였다. 선거관리 위원으로는 노회장 5



“충경노회·부산노회·경원1노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노회장 최종태 목사

부노회장 곽효상 목사
부노회장 한영복 장로
서기 정현욱 목사
부서기 조성환 목사
회록서기 최승범 목사
부회록서기 박재경 목사
회계 한광옥 장로
부회계 하영선 장로

노회장 010-2536-8634
서기 010-6616-7197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북동노회



노회장 하금식 목사

부노회장 조찬옥 목사
서기 양민환 목사
부서기 김동열 목사
회록서기 김인석 목사
부회록서기 정덕순 목사
회계 조성준 장로

노회장 010-6651-7732
서기 010-3035-3065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도노회



노회장 정대성 목사

부노회장 류영근 목사
서기 류경숙 목사
부서기 김남부 목사
회록서기 백운학 목사
회계 임찬미 목사
부회계 양태술 목사

노회장 010-6418-3468
서기 010-5225-2524

2015 전국 교역자 부부 하기수양회 이모저모



김광채 박사 특강



김광채 교수

개신대학원대학교 역사신학

이 강의는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직원 수련회에서
진행된 강의입니다.

내가 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라는 것을 알려면 인생은, 앞으로 시간이 10년이 주어진 사람도 있고 30년, 50년, 70년 주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가능성이거든요. 가능성을 이제 어떻게 현실로 바꿔갈 것인가 라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하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신대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혹시 여러분들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려나 그 순간까지는 이 곳과 함께 유기체로 있는 겁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지체, 연합,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 지체거든요.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유기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님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고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신대에 대하여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개신대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개신대가 봉사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 기관은 바로 개신교단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신교단을 위하여 분사하는 것인 데, 직영 신학교나 인준 신학교나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그건 다음 문제예요. 개신대와 개신교단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먼저 개신교단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개신교단에 대해서 알려면 한국 장로교회를 알

개신대학원대학교 역사적 정체성 ①

아야 합니다. 개신교단은 장로교회의 한부분이거든요 한국 장로교회의 자체이므로 한국 장로교회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국 장로교회는 여러 교파로 여러 교단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우리가 처한 구체적인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거니깐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을까요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의문을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안 좋다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가치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종말적입니다. “종말적이다”라는 것은 언젠간 종말에 가서는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요새랄로 평가입니다. 종말이 최종평가를 받는다는 말인데 그 평가는 우리가 순간순간 받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받는 것이 모아져가지고 최종적인 평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상 가치판단이 어떤 행동이든 어떤 삶이든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분열이라는 것은 떼 느끼면 가치판단을 해볼 때 “좋지 않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가치판단의 방향을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지나친 분열은 분명 잘못된 것인데 그러나 분열이 필요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악 혹은 불가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논리로 ‘악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만 파악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개혁의 역사와 장로교회가 처음 생겼던 영국과 미국의 장로교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장로교 역사는 한학기강의 분량인 데 아주 긴박하게 짧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장로교회 역사를 위해서 종교개혁역사를 봐야 하는데 종교개혁역사를 보면 1517년 마틴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마틴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원래 목적은 새로운 교과를 만들자 그렇게 아니었어요. 순수한 의미에서 교회를 갠신하자. 새로운 교회, 새로운 형태의 교회, 새로운 모습의 교회, 부폐한 교회를 정말 바른 교회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시작을 한건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종교개혁의 결과 형성된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실패하였어요.

그리고 여러 개 교파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계가 우리 개신교를 공격할 때 벌미로 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점입니다. 개신교는 나뉘어졌다. 하나님 아니다. 개신교를 그들이 말할 때 어떻게 말하나면 열교라고 합니다. 개신교라 안해요. 분열할 때 열자를 써서 분리교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하나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아주 심각하고 빼아픈 얘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여러 교파로 나누어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중앙집권적이다’ 이걸 반대합니다.

로마 카톨릭교의 시스템은 중앙집권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냐라는 포인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이 점이거든요.

루터가 제시한 교회 시스템은 국가교회 시스템 내지는 국민교회 시스템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개념은 세 개 교회예요 로마 카톨릭, 카톨릭, 이는 보편적이란 말입니다.

세 개 교회가 전체가 하나로 접종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 이론지역인 시스템으로 자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교회의 캠퍼를 끝 수 도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로마가 세계교회의 수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가 세계교회 수도가 되어야 되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혹은 각 국가의 교회가 자치해야 할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가 중요하다는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 개념으로 독일교회가 로마교회로부터 독립하고, 영국교회가 로마교회로부터 독립하고, 프랑스 교회가 로마교회로부터 독립하고, 스위스 교회가 로마교회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그 독립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념의 차이인데 중앙집권적인 것이 꼭 좋은가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꼭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황이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된다고 할 때 그 하나가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으로 하나님 되어야 한다는 개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점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것이 제가 제시하는 생각에 의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교회 자체도 중앙집권적이 되는가 그건 아니다. 독일의 각 지방, 작센지방, 마렌지방, 각지방별로 자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를 한다해서 독일교회 자체가 연합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었다.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하는데 자유로운 입장에서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총장님께서 독재를 하시는 분이나 제가 볼 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권력을 짊었다해서 권력을 맡대로 휘둘러서 너희들은 나한테 굴종을 해야해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런 지도자는 독재적인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루터는 그러한 리더쉽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늘 개념에서 리더쉽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역사를 볼 때 사람의 역사거든요 사람은 함께 간다 유기체로 함께 갈 때는 반드시 그 곳에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 모여서 함께 같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리더는 어떤 리더쉽을 자기 이상적인 리더쉽으로 생각하느냐 그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하구요. 팔로워들도 나름대로 어떻게 내가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리더쉽의 문제와 팔로워쉽의 문제를 우리는 동시에 같이 생각 해야 합니다.

참된 리더는 어떤 리더나 진정한 팔로워, 주님을 따르는 디사이를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된 리더, 참된 팔로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자유에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만 만약에 너가 맡은 일을 안하면 징계를 받아 벌을 받게된다. 그러기 때문에 징계, 벌이 두려워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나 이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기꺼서 즐거워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그 일을 해보자라고 할 때 기쁘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무슨 책을 썼느냐 크리스챤의 자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크리스챤의 자유라는 책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크리스챤의 자유라는 책에서 루터가 무얼 얘기하나면 크리스챤은 누가 봤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으면 안된다. 그 개념이 암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속에 깔려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참된 크리스챤의 도리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어도, 스스로 섬기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크리스챤에게 어떤 자유가 있느냐 크리스챤에게는 있는 자유는 자유인데 섬기는 자유예요.

그리스챤에게는 섬기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크리스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삽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삽니다.

이리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섬겨야 하는데 주님은 눈에 안보이자나요.

그러니까 보이는 주위 형제 자매들을 섬긴다. 섬기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이론을 교회에 적용하면 어떤 한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이 세도 다른 교회를 짓밟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치를, 그러니까 자치를 허용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회는 다른 지역교회의 간섭 없이 자치를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각 지역교회가 자치를 할 때 인간이 억하기 때문에 자치로 끝나면 좋은데 분리를 할려고 합니다. 끊어질려고 합니다. 유기체는 서로 연결되는 건데 서로 자체는 달라도 서로 연결되는 건데 아예 떨어져 나가겠다.

이렇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독일교회는 정말 연합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방 자치를 하려하고 하지만 연합을 잘하고 있어요.

스위스 교회도 루터교회가 아니고 칼빈주의, 개혁교회인데 거기도 분열되지 않았어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네덜란드에서 발생했어요, 네덜란드는 칼빈주의 국가인데 그럼 칼빈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었느냐 제가 볼 때에는 칼빈주의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거기 네덜란드 칼빈주의는 유럽에서 가장 일찍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다른 교파에 대한.

그래서 첨후사상에 대해서도 종교의 자유를 주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합니다.” 유명한 데카르트,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지만 네덜란드에서 활동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억압을 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그렇게도 네덜란드는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를 오용, 남용한 교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재세례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수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보다도 루터나 칼빈이 생각하는 교회 개념은 자치를 하면서도 서로 연합하는 것인데 재세례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순정성, 교회의 순정성에 어긋나면 가차 없이 자식들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분열이 시작되는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칼빈주의자들에게 요구한 거죠. 우리들을 따라와라. 예를 들어 성인세례, 유아세례 외 하느나, 자기들이 유아세례를 틀렸다고 보는건데 틀린것을 너희들이 하고 있으니 우리는 도저히 너희들을 따라갈 수 없다. 하면서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따로 모이는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데 결국은 교회의 순정성을 하다 보니깐 이런 성인세례, 침례 까지, 물로 살수하는 것은 안 된다. 성경에 어디 살수가 있나 물 속에 예수님이 잠겼는데 살수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형식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죠.

과연 침례라고 하는 것이 전세계에 꼭 필요한 것 이나 이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미 주후 일세기 말에 디디께 라는 속사도 교구에서 상황에 따라서 침례도 할 수 있지만 살수도 할 수 있다라고 하용이 됐습니다. 1세기 말입니다. 그만큼 그 때 당시에 세례에 대한 융통성을 주면서 속사도들이 가르친 건데,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속사도들이거든요.

이 재세례파의 성경관은 솔라스크립트라? 오해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 이것을 오직 성경에 있는 것만 하겠다. 만약에 성경에 있는 것만 하면은 개신대학원대학교 안해야 해요. 성경에 개신대학교 있습니까? 없거든요 없어요.

(계속)

“충경노회·부산노회·경원1노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



노회장 장효근 목사

부노회장 이경호 목사

서기 이경호 목사

부서기 백연홍 목사

회록서기 박영애 목사

부회록서기 홍성표 목사

회계 최승국 목사

부회계 김예수 장로

노회장 010-5369-1467

서기 010-3343-5834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원노회



노회장 나건용 목사

부노회장 류근순 목사

부노회장 최만수 장로

서기 정두식 목사

부서기 서삼상 목사

회록서기 하성종 목사

부회록서기 김수일 목사

회계 김용구 장로

부회계 방두언 장로

노회장 010-7686-7004

서기 010-7749-8549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수노회



노회장 서만성 목사

부노회장 강명숙 목사

부노회장 배윤규 장로

서기 정성화 목사

회록서기 김기무 목사

노회장 010-5720-1829
서기 010-9411-9564

개신대학원대학교 제2회 목회 세미나

목회를 말한다 ②

배창돈 목사
평택대광교회

이 강의는 5.12(화) 개신대에서 배창돈 목사가 강의한 것을 녹취하여 정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갑자기 부흥해서 1년만에 500명 또 1년만에 천명 모인다는 말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저자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시는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택에서 제일 큰 교회 되겠다. 진짜 큰 교회 만들겠다. 나도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 안하고 저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척한지 33년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당은 너무 작은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제자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교회이자 프로그램이 많고 조직을 잘 꾸리고 하는 것은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공동체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제자훈련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서 3장 하나님과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지 않으면 교회는 오한지출과 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오합지졸들로 장군을 만들어서 임진왜란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제자훈련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목회철학입니다.

제자훈련 안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소원을 보면 세상에서 맛 읽은 소금이 되는 것과 같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예수 곧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는 그리스도 향기를 날립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기진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주님의 비전이 곧 제자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기념관 주님의 제자인가 생각해보시오. 매일 부족한 투성이니 주님의 제자가 되길 노력합니다. 목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교인들도 주님의 제자가 많이 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새기족이 있을 때 예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새기족만 5주를 충실히 받고 등록시키니까 이단들도 걸리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는 두 가지를 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예수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복음의 열정이 많는데 성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싸움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폭발 훈련 했으니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열심히 전하는데 전도를 듣던 사람이 교회 유통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 유통을 하냐고 하면서 써웠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얼굴도 좀 달라져야 합니다.

몸이 귀한데 교회를 몸이라 표현한 것은 존중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괴로 깊고 세우신 교회 예수께서 생명을 주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생명교회입니다. 몸이 귀하기 때문에 식사도 하고 세수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권세있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안에 제자들이 있는 걸 보니까 교회가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했을까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늘날 직분자들도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에서 뭐 하나 한다고 하면 대충대충하고 그립니다. 교회의 약속을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의 결정이나 교회의 말에 잘 순종하지 않는 것 역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면 제자훈련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 교회가 많은가 생각할 때 이런 아니거나 생각합니다.

존귀한 공동체교회를 교인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목회자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교회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교회는 제자가 가득하고 교회가 존귀한 교회인걸 알았을 때 교회는 세상에서 권리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에서 보면 교회가 민물을 충만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어떻게 밭워합니까? 한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하면 형상 기빠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성도가 변화받아 형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가정이 바뀌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역할을 하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권세 있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실 때마다 사람도 변하고 살개오, 사마리아여인, 상처 입은 사람들은 치유를 받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늘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점점 가슴이 뛰고 정말 인생 살맛이 나오고 내면의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와서 상처받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의 지탄을 받을까 주님 말씀 하신 대로 안해서 그려요. 제자훈련 안해서 그려요 제자훈련 잘 하세요. 여러분들 제자훈련은 조급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요. 저는 제자훈련 2년만에 몸이 나갔거든요. 식사도 못합니다. 제자훈련 할 때 5시간씩 앉아서 몇 명을 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안에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빠져 들어요 형제들이 그 안에서 말씀을 갖고 눈물을 흘리고 그려니깐 인할 수가 없어요. 4시간 5시간 보통 그때는 물도 안마시고 내가 30대 초반에 그 때부터 몸이 그때 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고 밥도 못먹겠다고 그다음에 혈소판도 완전히 삼분의 1로 줄고 그랬습니다. 제자훈련을 저는 87년도부터 했으나간 사랑의 교회에서 86년도에 시작했으니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옥련을 목사님이 제가 몸이 아플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저 아프다고 약도 보내주고 했습니다. 이제는 회복이 돼서 제자훈련 하는 분들한테 조절해가면서 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권세있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안에 제자들이 있는 걸 보니까 교회가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결식자들을 위해서 다른에서 후원받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평신도 세미나 등등 일년에 5번 세미나 하는데 그걸 다 저희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권세 있는 공동체이고 굉장히 권세 있습니다. 저는 「권세 있는 공동체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섬김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로 드렸죠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섬기는 교회가 회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곳이 전국입니다. 섬기는 부부 가정에서 어울습니까? 아니 섬기지도 자주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자매들이 당신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하고 유쾌하게 묻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섬기면은 좋아요 섬기지 않고 일만 시키면 짜증나요 그래서 음식할 때 기분 나쁘면 들길은 넣고 그다 잘 섬기면요 음식도 맛있는 거 대접하고 그런 수 있습니다.

가정은 부부가 한몸을 이룰지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몸속에 있는 모든 자체는 두 가지 무조건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도 무조건 사랑하고 섬기야 합니다. 물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고 나서 내내는 남편을 잘 섬기고 여자들도 남편을 잘 섬깁니다. 또 교회안에서 서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섬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가지 물질로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진수는 물질까지 섬기는 것이다 물질로 안 섬기면 하나님 섬기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교회 다 교인들이 체질화 되어 있어서 물질로 섬기는 것도 교인들이 현금을 하는 것도 아주 잘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 보면 교인들이 현금한 만큼 더 가져갈려고 그립니다. 그래서 면밀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을까 궁리를 합니다. 장로님들한테로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날 써우는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돈이 없어서 비풀을 잘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프레젠토리 설치되어 있고 그고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 주일학교 유년부 조등부 .. 각부서에서 교사들이 우리가 돈나서 했으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년부 소년부 아래층에서 자기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학교도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시골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교회가 75% 전도된 분들입니다. 부자가 없습니다. 섬기는 곳은 천국이고 섬김을 받을려는 곳은 지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면날 섬김 받려고 하나님 교회가 싸우고 그리고 지옥이 됩니다. 저는 제자 훈련하면서 직분자들이 다루는 것을 못했습니다. 물론 자기들끼리 마음이 아팠는지도 있지만 다른 것을 못했습니다. 소리없이 다 섬기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는 목사님 한분은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자기 교회는 큰 도시의 신도시 교회인데 옛날에는 무슨 식당 봉사하고 행사 봉사하면 항상 뒤끝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면날 싸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입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훈련 받고 나서 교육을 잘 시키고 나니까

아무 말이 없다고 합니다. 조용하게 섬기고 말도 없고 그 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관봉사 부서 이름을 다 바꾸었습니다. 각 부부장을 섬김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더 성경적인거 같습니다. 부장 대장 다 없애고 다 섬기자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제자훈련하고 봉사 이름 바꾸세요. 섬김이 친양재 섬김이 사무실 섬김이 봉사 섬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안에서는 평신도를 가운데서 유급직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제자훈련을 해야만 제자가 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급직 하나님도 없습니다. 사무실부터 차별적으로 봉사하고 섬깁니다. 화령한 교회 저는 이제 주님이 생각하는건 그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대로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하면 미태복은 4:23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누가 하느냐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율을 통해 본 목회 사역의 원리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첫 번째 전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기를 원하고 사도바울은 충실히 해서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한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깐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한영혼에 집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한사람이 전도해서 예수믿고 변화되고 아들을 전도하고 암코를 중독자들이 변하고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의 방법은 권한, 암유, 가르침, 진리로 마음을 차곡차곡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말씀을 경험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원하시는대로 하다보면 결국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깨닫게 됩니다. 저는 큰 교회 목사가 된다고 조금 이라도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놀랍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힘입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년부 소년부 아래층에서 자기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학교도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시골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교회가 75% 전도된 분들입니다. 부자가 없습니다. 섬기는 곳은 천국이고 섬김을 받을려는 곳은 지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면날 섬김 받려고 하나님 교회가 싸우고 그리고 지옥이 됩니다. 저는 제자 훈련하면서 직분자들이 다루는 것을 못했습니다. 물론 자기들끼리 마음이 아팠는지도 있지만 다른 것을 못했습니다. 소리없이 다 섬기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는 목사님 한분은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자기 교회는 큰 도시의 신도시 교회인데 옛날에는 무슨 식당 봉사하고 행사 봉사하면 항상 뒤끝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면날 싸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좀 싸우자 말고 정치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운전히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

“충경노회·부산노회·경원1노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천광역노회



노회장 장대수 목사

부노회장 박경필 목사
서기 오광근 목사
부서기 전영성 목사
회록서기 이웅배 목사
부회록서기 경기만 목사

노회장 010-6325-3916
서기 011-221-5877

대한예수교장로회 충경노회



노회장 이종선 목사

부노회장 권혁진 목사
서기 권혁진 목사
회록서기 오재근 목사
부회록서기 김수일 목사
회계장영선 목사

노회장 010-5880-6231
서기 010-9229-0675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남노회



노회장 배상태 목사

서기 이근주 목사
회계 김석조 목사

노회장 010-4110-3604
서기 010-9267-4773

° | 모자모

개신대학원대학교 종강

개신대학원대학교는 지난 6월 마지막주를 기점으로 1학기 과정을 모두 종료하고 종강하였다. 학사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7월	9(목)~15(수)	성적확인기간
	13(월)~15(수)	성적이인정기간
	16(목)	학술학위과정 학위논문 수정본 제출 마감·전교장 논문최종마감
	21(화)	2015학년도 후기 2차 입학전형
8월	22(수)	2015학년도 하계 졸업식·총회
	13(목)	2015학년도 하계 학위수여식
	19(수)	2015학년도 후기 3차 입학전형
	17(월)~21(금)	2015학년도 2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기간, 휴학·복학신청 마감일
24(월)~29(토)	2015~2학기 개강, 개강예배, 오리엔테이션	
	24(월)~29(토)	2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현장록회실습 신청서/접수 제출기간

2015학년도 하계 학위 수여식

2015 학년도 하계(제110회) 학위수여식이 8월 13일(목) 11:00시에 개신대학원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일 시 : 2015. 8. 13 (목) 11:00

△ 장 소 : 본교 7층 대강당

△ 까운, 모자, 명찰 대여 및 반납 장소 : 4층 401호

졸업대상자는 본교 4층 401호 배부장소에서 졸업 까운 및 모자, 명찰을 대여 받고 식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대여 받았던 장소로 반납.

오전 09:20부터 졸업 까운, 학사모 대여 → 졸업식 후 까운, 학사모, 명찰 반납

△ 졸업생 유의사항

① 졸업생은 당일 09시50분까지 7층 대강당으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지정석)

② 졸업생은 당일 10시부터 리허설이 시작되기 때문에, 학생분들께서는 9시 20분까지 대여실 401호로 가시면 됩니다.

③ 졸업식의 주인공은 졸업생 여러분입니다. 원활한 여러분의 학위수여를 위하여, 진행위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교내 주차장이 부족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원 교수 CTS '평신도 아카데미' 방송 출연

김구원 교수는 매주 화요일 4월 20일부터 16주 동안 CTS '평신도 아카데미' 방송 출연을 통해 구약성경의 해석방법, 역사적, 문학적 등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다루는 강의를 하고 있다.
(본방) 월~목 10:00, (재방) 목~금 19:00



총회 서기 하금식 목사 대통령 표창 수여

총회 서기 하금식목사는 민간어린이집 운영관리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동안 하금식목사는 전북 전주의 예전교회 소속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좋은 평을 받아왔으며 다양한 활동으로 신망이 두텁다. 하금식목사는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역사신학으로 철학박사(Ph.D)학위를 취득하였고 예전교회 담임목사 및 예전어린이집 원장이며 개신총회 서기로 수고하고 있다.



손석태 명예총장 아들 결혼

지난 7.4(토) 오후 2시 손석태 개신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의 아들인 손선용군이 결혼하였다. 새안암교회 담임목사인 최승범목사의 주례로 손선용군과 차도림양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약 600여명의 하객이 축하해주었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직원 워크숍 개최

개신대학원대학교는 교직원 전원이 7/2부터 7/3까지 양평에서 1박 2일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조성환 총장의 설교로 개회예배를 드리고 성격유형과 삶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장원철 교수가 강의하고 민결목사가 예절 및 친절교육을 진행하였다. 구병욱 교수의 인도로 기도회를 진행하였다. 7/3에는 부서별로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어서 개신대의 역사적 정체성에 관하여 김광체 교수가 강의하였다. 교수 및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좋은 강의를 들으며 단합의 시간을 가지며 좋은 시간을 가졌다.



전국 교역자 부부 하기 수양회 총회장 박 용 목사 환영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개신총회 회원 여러분, 섬기시는 가정과 교회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제1회 전국 교역자부부 하기 수양회 행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넘쳐 나는 수양회가 되기를 소망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13-14절은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억압한다는 말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힘으로 얹눌러 그가 자유롭지 못하게 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착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갈 뜻을 빼앗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품꾼의 삶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말씀은 경제적으로 내게 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의 형편을 잘 헤아려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힘없고 약한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예굽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 이십니다. 예굽에서 종으로서 괴롭힘을 겪으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건져내셨으므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보다 약한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없습니다.

시하고 있는 레위기 19장은 절반 정도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다른 절반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 합니다. 거룩한 삶이라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이웃을 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말합니다. 그려므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더 잘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3-14절은 “너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으로 네가 나를 경외함을 드러내 보여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번 수양회가 그냥 교제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개혁신앙을 굳건히 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고칠 것을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회 개신총회 전국 교역자부부 수양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약한 이웃을 잘 배려하고 정중하게 대하여 잘 섬기는 신실한 경험에 넘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신신문은 전국교회와 함께 교단발전을 열어갑니다.

신문발전과 운영을 위해 구독료, 광고료, 각 노회 파송이사회비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안내

수협 154-67-09920 (예금주 조성환)

연락처

편집국장 고태성 목사 010-7730-2970

광고 가격표

칼라	칼라	흑백	예배광고 월 3만원
5단	60만	50만	
1/2	30만	25만	
1/4	15만	12만	
전면	180만	150만	
앞면	80만		
뒷면	200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 예전도회관 604호 02)3674-700~9 FAX 02)3674-7010

“충경노회·부산노회·경원1노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노회장 백영강 목사

노회장 010-8810-9182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북노회



노회장 조광환 목사

노회장 010-3598-3248
서기 010-2044-3927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원1노회



노회장 김남식 목사

노회장 010-3350-0091
서기 010-2224-7530

부노회장 노베드로 목사

서기 김대현 목사

회록서기 김정수 목사

회계 김광식 장로

한기총 직전대표회장시 행해진 이단 해제결의 유효로 했다가 다시 원인무효

이단해제결정 재심하지 않고

유효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원인무효 성명서 발표

지난 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단검증특별위원회의 결론을 보고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의 이단검증특별위원회의 결론이 9일 실행위원회에서 보고됐다. 홍재철 전 대표회장 시절, 이단이 아니라면 이단에서 해제한 달라방전운동 류광수 목사와 평강제 일교회 故 박윤식 목사에 대한 이단 검증특별위원회의 결증 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나 발표내용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논란이 있다.

전문위원들은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재임 시 이루어진 이단 해제 결정을 무효로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류광수 목사에 대해 각각 “이단성이 있어 보인다”, “예의주시”, “이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서로의 엇갈린 입장

을 주장하며, 근본적으로는 소속 교단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또한 앞으로 한기총에서 이단 해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결론은 “원인무효라고 하면 좋겠지만 류광수 목사 검증의 모

건에 대하여 재론하지 않기로 하며, 각 교단의 입장을 존중해 여기기로 결정하다”로 내렸음을 밝혔다.

위의 한기총 이단검증 특별위원회의 결의의 요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류광수 목사 검증의 건은 심의는 하였으나 재론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기존에 한기총에서 결의하였던 이단해제 결의를 그대로 존중하는 결의이다. 두 번째로는 각 교단의 입장은 존중해 여기기로 결정하다는 것이다. 결국은 한기총의 결의는 원인무효하지 않고 류광수 목사의 이단해제결의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각 교단이 교단별로 류광수 목사가 이단이라고 한 교단의 결의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단문제만 해결되면 한기총과 하나님을 통합할 수 있다고 강조해온 한국교역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이단을 감싸는 기관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특히, 이단의 규제와 해제는 교단 고유의 권한으로, 연합기관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기관은 각 교단의 입장은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이단제침특별위원회 전문 위원으로 활동해 온 구준서 목사도 류광수 목사의 이단성 재검증 작업이 횟수가 됐다면 개탄스러워했습니다.

구 목사는 홍재철 대표회장 재임 당시 결의했던 이단 해제 결정은 모



두 원인 무효라는 게 전문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이단 해제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기총이 원상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7.16(목)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이단검증특별위원회는 다시 ‘한국 교회에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실행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해석상에 오해가 있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정확한 보고를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첫째 한기총에서 위촉한 각 교단 전문위원들 및 검증 위원들의 결증결과 보고를 전적으로 수용한다.

둘째 한기총은 이단의 결증 및 해제에 대해, 이 문제는 각 교단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각 교단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기로 한다. 따라서 직전 대표회장시 행해진 이단검증 해제에 관하여 결정된 사항은 무효로 할 것을 제안한다. 세째, 앞으로 한기총은 이단 결증이나 해제에 대한 논의는 각 교단의 뒤로 일임하고 한국 교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단에 대해서

는 교계와 연합하여 강력히 대처하며, 오직 한국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한 연합 사업에 매진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류광수 목사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고 기존 한기총의 이단해제 결의를 존중하겠다는 지난 보고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오히려 이단해제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성명서 문구를 자세히 보면 “무효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하여 이는 제안일 뿐이니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기에 진짜 보고서가 무엇이고 어떤 결의가 참되게 이루어졌는지 한기총 내부적으로 진통과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락가락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기총 이영훈 회장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이단문제를 해결하고 한교연과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이다.

앞으로 불건너간 것으로 보였던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논의는 다시 불씨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회원 교단으로 있는 개혁교단(다락방종)의 처리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기총과 한교연의 류광수 목사측을 안고 통합을 이를 수 있을지 아니면 배제하고 통합을 이를 수 있을지 아니면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은 물건내가고 분열이 고착화될지는 이영훈 목사의 한기총이 결정할 일이다.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교단장 협의회 복원

개신총회의 위상이 높아질 것을 기대

이드라인이 제시되기도 했다. 조직 안은 상임회장단과 공동회장단, 서기, 회계, 감사를 두는 임원회와 25명 내외의 운영위원회, 그리고 사무총장 및 사무국을 포함하고 있다.

정영택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는 “교단장협 복원을 두고 ‘또 하나의 연합기관’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한기총이나 NCCC 등 기존 연합기관들의 사업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면서, 큰 틀에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도의 기구였으면 한다”고 제안하면서

정영택 목사가 “교단장협이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한국교교교단장협의회와의 관계 문제 등에 대한 일종의 전권위원회를 뽑아 후속 처리를 맡기자”고 제안하고 참석자들이 동의해, 준비비 7개 교단 대표에게 이를 맡긴 뒤 회의를 마무리 했다.

한편 교단장협의회가 복원될 경우 회원자격으로 인가된 4년제 신학교와 신학대학원대학교를 보유한 교단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신대학원대학교를 두어야 한다는 회원 자격과 임원 및 실무진 조직안 등 구체적 가

총회주일(세례교인헌금) 현황

총회주일헌금과 노회상회비를
총회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교회	담임목사	금액	노회
1	종암중앙교회	조성환	5,000,000	경기노회
2	대운교회	곽효상	90,000	〃
3	임미누엘교회	임구월	360,000	〃
4	사랑의밀씀교회	배상태	130,000	영남노회
5	빈서교회	조영식	120,000	경기노회
6	순직한교회	박 용	1,000,000	수도노회
7	풍성한교회	양민환	30,000	전북동노회
8	이호교회	문경옥	10,000	경기노회
9	늘성학교회	박민수	110,000	〃
10	목행장로교회	강창오	100,000	인천광역노회
11	은혜동산교회	서민성	150,000	여수노회
12	행신한빛교회	김한빛	100,000	수도노회
13	동서울교회	김순모	150,000	경기노회
14	새안암교회	최승범	200,000	〃
15	목양교회	김진일	300,000	〃
16	하나교회	박진권	500,000	〃
17	예정교회	정현숙	400,000	〃
18	예전교회	허금식	160,000	전북동노회
19	해상교회	고민주	50,000	경기노회
20	청대교회	김영을	200,000	수도노회
21	희망의교회	나건용	100,000	경원노회
22	삼성중앙교회	정대성	200,000	수도노회
23	선교교회	정덕순	50,000	전북동노회
계			9,510,000	

입금순/단위 원

미국인 35%만 “미국은 기독교 국가”

미국, 기독교 국가로서 믿음이 퇴색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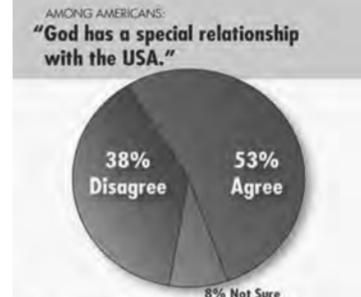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서 믿음이 퇴색하고 있다”

PRRI(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와 리이프 웨이 리서치(Life Way Research)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1/3이 미국이 예전히 기독교 국가라고 여기고,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미국이 전통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로 여긴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난달 미국인 100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미국을 예전히 기독교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2010년에 조사에서는 42%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0포인트 정도 줄어든 35%로 나타난 것이다. 반대로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으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응답은 2010년도에 37%에

서 현재는 45%로 8%나 증가했다. 또한 “미국은 결코 기독교 국가였었던 적이 없다”는 대답은 17%에서 14%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3%이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38%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의하는 이들 중 아프리카 계(62%) 미국인이 백인(51%)보다 많았으며, 복음주의자 2/3 이상이 미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믿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남부 지역 59%, 고등학교 졸업자 이하 66%, 여성 58%, 45세 이상 복음주의자들이 동일한 관점을 유지하는 의견에 더 적극적이었다. &# 160;

“미국인들에게 ‘God Bless America’는 노래 이상의 ‘기도의 의미’가 담겨있다”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미국을 축복할 것이라는 전형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이 신학적으로 많은 토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이 하나님과 자신의 나라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트쳐는 “이전의 조사에서 미국인의 대다수가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에 ‘하나님 아래 있는’에 대해 대답자들은 38%, 고등학교 졸업자 이하의 사람들은 46%가 “미국의 좋은 날들이 지나갔다”고 대답했다. 라이프 웨이 리서치의 이 사장 에드 스트쳐(Ed Stetzer)는



미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인가 질문에는 미국인 38퍼센트만 동의했다.

전했다. 머서대학 교수 데이비드 구쉬는 “국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최고의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데도 애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CT(Christianity Today)의 자매인 기독교성경연구원(Christian Bible Studies)은 기독교의 애국심과 민족주의적 애국심 사이의 차이를 연구하고 있다.

“충경노회·부산노회·경원1노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노회



노회장 이천섭 목사

부노회장 이동발 목사
서기 이용은 목사
부서기 이영재 목사
회록서기 안상수 목사
부회록서기 장요엘 목사
회계 유인옥 목사
부회계 공순일 목사

노회장 010-5736-9191
서기 010-9367-7950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



노회장 이영오 목사

부노회장 박장권 목사
부노회장 모근창 목사
서기 성재운 목사
부서기 박진 목사
회록서기 오원옥 목사
부회록서기 이화성 목사
회계 김용안 목사
부회계 신현식 장로

노회장 010-3632-3749
서기 010-6790-8500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정교회



담임 정현우 목사

예배 안내

- 새벽예배 오전 5시
- 주일오전 오전 11시
- 주일오후 오후 2시
- 수요예배 오후 8시
- 금요예배 오후 8시
- 유·초등부 오전 9시
- 중·고등부 오전 9시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318-18
02) 942-7197 / H.P 010-6616-7197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2015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새 천년 새 시대에 한국의 영적대부흥과 민족 복음화, 그리고 복음의 세계화를
주도할 영적지도자 양성을 위해 **개신대학원대학교**가 도약합니다!

● 모집과정 및 지원자격

과정	학위구분	지원자격
석사	목회학석사(M.Div.) 성경주해석사 신학석사 상담심리학석사 사회복지학석사 코칭학석사 기독교교육학석사	학사학위 소지(예정자)자
박사	철학박사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예정)자
	성경주해박사	신학석사 또는 성경신학석사 학위 소지(예정)자

● 모집 일정

	1차	2차	3차
원서접수	6.08(월)~6.29(월)	7.01(수)~7.20(월)	7.23(목)~8.18(화)
면접 및 필기시험	6.30(화) 9:30A.M	7.21(화) 9:30A.M	8.19(수) 9:30A.M
합격자 발표	7.02(목)	7.23(목)	8.21(금)

● 입학문의

- 전화: (02) 945-0910 / 팩스: (02) 945-0143
- 이메일: mkim@rts.ac.kr
- 주소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235(미아동) 교학처 입학담당자 (142-810)